올해 창립 96주년 맞는 유한양행의 꿈

혁신 신약개발 과감한 투자…글로벌 제약사 도전

기초연구 특화 오픈이노베이션 가동
폐암치료제 '렉라자' 글로벌 임상3상
"유한의 100년 미래 끌 혁신 제품"
군포시와 첨단바이오 R&D센터 건립



신약개발을 위해 연구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연구원들. 유한양행은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적극 추진으로 최근 혁신신약 후보 렉라자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제공 | 유한양행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

유한양행이 R&D 중심의 글로벌 신약 제약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초연구 분야에 특화된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유한이노베이션프로그램(YIP)'이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국내 첫 글로벌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는 폐암치료제 렉라자는 다국적 임상 3상에 돌입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군포시와 협약을 통해 첨단 바이오 R&D 센터 건립 협약을 맺고 국내외 대학과 mRNA 신약 플랫폼기술 공동연구개발에 들어갔다.

●유한이노베이션프로그램 첫 18개 과제

최근 주목할 행보는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혁신 신약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는 차세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유한양행은 유한이노베이션프로그램(YIP)의 연구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3분기부터 연구지원을 진행한다.

유한이노베이션프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기초과학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연구를 지원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협력하는 기초연구에 특화된 국내 첫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이다.

올해 첫 시행된 유한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안된 120여 개의 기초연구과제 중 18개 과제가 선정됐다. 유한양행은 유한이노베이션프로그램이 미래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의 초석이 되고 기초연구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우리나라 신약 기초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구에 특화된 유한이노베이션 운영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한양행은 2015년부터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해 왔다. 8년간 사업다각화와 바이오벤처 및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투자한 곳이 45개 사, 금액으로 5000여억 원에 이른다. 그 결과 2015년에 9개였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은 현재 30개까지 늘어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외부 공동연구 과제이다.

유한양행이 첫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기대를 거는 폐암치료제 렉라자(LECLAZA)는 오픈이노베이션 투자가 결실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이다. 렉라자는 조욱제 대표가 최근 출시 1주년 기념식에서 "다가올 유한 100년사를 앞두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첫 단추가 될 혁신제품"이라고 평가한 전사적인 기대가 높은 치료제다.

2015년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에서 도입된 렉라자는 당시 전임상 직전 단계였다. 유한양행은 물질 최적화, 공정개발, 전임상과 임상 등을 진행해 약물 가치를 높여 2018년 미국 얀센 바이오텍에 1조4000억 원 규모로 기술수출을 했다. 전형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세스를 통한 성과다. 렉라자는 지난해부터 품목 허가와 보험급여가 인정돼 본격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얀센은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글로벌 병용 3상을 진행하는 등 상업화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제2, 제3의 렉라자 조기 출시 노력"

올해로 창립 96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은 이제 곧 100년 기업을 앞두고 있다. 조욱제 대표이사는 6월20일 진행한 창립 96주년 기념식에서 "유한 100년사 창조를 불과 4년 앞둔 지금, 우리의 목표인 글로벌 제약 50대 기업이 되기 위해 혁신신약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미래 비전을 밝혔다. 이어 "렉라자의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하고 다른 중점과제들도 집중개발해 제2, 제3의 렉라자를 조기 출시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기념사에서 거듭 강조한 미래목표를 위해 유한양행은 R&D 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급한 기술료만 23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투자를 통해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약 4조 원 정도가 수익으로 잡히게 된다.

2월에는 신약 개발을 위한 원스톱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군포시와 첨단 바이오 R&D 센터 건립 협약을 맺었다. 유한양행이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 30개 중 17개가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이어서 적극적인 투자와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착공을 들어가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코로나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로 주목받는 첨단 연구분야인 mRNA 치료제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화여대, 미국 신시네티대와 각각 공동연구개발 계약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원천기술로 mRNA 치료제의 사업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아이허브, 한국 소비자 위해 네이버페이 서비스 도입

세계 최대 건강 라이프 쇼핑몰 아이허브(iHerb)가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로컬라이징(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허브는 최근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 소비자들은 앞으로 아이허브의 웹 사이트 및 앱에서 쇼핑 후 네이버페이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아이허브는 네이버에 앞서 도입한 페이코,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국내 3대 간편결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됐다.

그동안 아이허브는 스마트 컨슈머 성향이 강한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로컬라이징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10여 년 전부터 한국어 지원, 제품 원화 표시, 한국어 상담 서비스 등을 차례로 구축했다.

과거 해외직구 플랫폼인 아이허브에서 결제하려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필요했다. 그러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기존 국내 전용 카드 및 해외 겸용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최지연 아이허브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은 글로벌 안테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네이버페이 결제 방식을 추가해 다양한 결제 선택권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거뭇거뭇한 '여름철 불청객' 기미 '레이저토닝'으로 맞춤 치료해야

피부 색소질환인 기미는 여름 대표적인 불청객이다. 강력한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하면서 거뭇거뭇한 여러 반점을 초래하는 것이다. 피부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나아가 멜라닌 합성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멜라닌 세포가 신진대사 활동을 일으켜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데 기미 증상이 두드러진다.

기미 증상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미백화장품 사용, 식이요법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기미는 피부 조직의 멜라닌 색소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자가치료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부과에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색소질환은 재발이 잦아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기미 등의 색소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레이저토닝이 있다. 피부 병변에 에너지를 조사해 멜라닌 색소를 잘게 부숴 피부를 재생하는 원리다. 레이저토닝은 장비에 따라 파장이 다르고 시술 범위도 차이가 있어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 주도 아래 최적의 장비 선택을 해야 한다. 정밀진단 후 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의 첫 걸음이다. 기미 병변의 깊이, 상태 등에 따른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청담안즈피부과 **권영신** 원장

일산차병원, 다학제 암케어 센터 진료 시작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은 다학제 암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통합진료센터를 오픈하고 4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센터에서는 차움에서 12년 간 운영·검증한 기능의학과 보완의학을 도입해 1대1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선보인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겸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암 케어 전문가 전성하 교수를 비롯한 한의학 교수진이 합류했다. 진료는 전성하 교수와 한의 교수진,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함께 진료하는 다학제 진료가 중심이 된다.

명지병원 '코로나후유증 기간별 증상' 연구 발표

한양대 명지병원 정영희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후유증클리닉 환자 1122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SCI 저널인 대한의학회지(JKMS) 7월호에 발표했다. '오미크론 시대의 급성 코로나19 감염 후 지속되는 증상'이란 제목의 이번 연구논문에 따르면 오미크론 감염 후 4주 미만에는 주로 호흡기 관련 증상이 나타났으나, 4주 이후에는 피로감, 주의력 저하, 우울, 시력저하, 탈모, 성 기능 장애 등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병원은 3월16일 국내 최초로 다학제진료시스템의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열고, 지금까지 3300여 명의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를 진료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 7월 7일 (목) 음력: 6월 9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기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명예를 얻는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뱀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장근무가 잘 성사되는 날이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의외의 금전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남의 간섭이 싫은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토끼띠생과 대화하라.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서류상의 문제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 7일 (목)

서울 60/60	27 / 31	인천 60/80	26 / 29
춘천 60/80	25 / 31	강릉 30/60	25 / 32
대전 20/60	26 / 33	전주 20/20	26 / 33
광주 20/60	26 / 32	대구 30/20	26 / 34
부산 30/20	25 / 31	창원 30/20	25 / 31
제주 20/20	27 / 34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6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